

한국 수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언어유형론적 검토

정해권

(조선대학교)

Jeong, Haegwon. (2023). A linguistic typological view on tense and aspects of Korean sign languag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1(4), 221-239. Tense is a grammatical category that expresses the temporal position of an event, while aspect is a way to look into the internal temporal composition of an event. In the description of tense and aspect in Korean Sign Language, there is confusion in the use of terms and descriptions of gramm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onomasiological approach to tense and aspects in Korean Sign Language, that is a perspective to analyze from concepts to symbols used in Linguistic Typology. Inflectional elements that appear along the time line can be set as grammaticalized tense expressions in a sign language. The leaning forward is analyzed as the near future tense, and the slow leaning forward is the future in Korean Sign Language. There is neither a perfective aspect that expresses a global view of the event nor an imperfective, so such viewpoint aspects are not useful for distinguishing aspects in Korean Sign Language.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phasal aspects, depending on the stages of progression of an event, there are prospective, inchoative, progressive, conclusive, completive, and resultative, which are also found in Korean Sign Language. In terms of tense and aspects in Korean Sign Language, it is analyzed that aspect is being grammaticalized into a more basic grammatical category, and tense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grammaticalization. This is because the way of viewing temporal phases of events is more iconic and easier to recognize.

주제어(Key Words): 오노마지올로지(onomasiology), 미래 시제(future tense), 예정상(prospective), 진행상(progressive), 종결상(conclusive), 완성상(completive), 결과상(resultative)

1. 서론

한국의 공용어로서 한국 수어(韓國手語, Korean sign language)는 소수 공동체인 농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별 언어로 한국어와 구별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¹⁾ 수어는 농인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자연 수어와 한국어를 손짓으로 부호화한 인공 수어(contrived sign language)로 구분된다(이준우 & 남기현, 2014, p. 37).²⁾ 수어는 손 위치(tabula), 손 모양(designator), 손 활동(signation)가 수어소(chereme)로 분석되었는데(Stokoe, 1972, p. 24), 이는 각각 수위(location), 수형(handshape), 수동(movement)으로도 불리며 수향(orientation), 비수지 기호(non-manual signal) 등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이준우 & 남기현, 2015, p. 54; 석수영, 2019, p. 403).

한국 수어에서도 수어소를 통해 다양한 기호(sign)를 나타내므로 세마지올로지(semasiology) 접근에 의해 각 기호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³⁾ 이는 개별 기호에서 출발하여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접근으로 기호가 갖는 언어 고유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언어 보편적 특징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현상을 비교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수어는 주로 한국어나 미국 수어를 바탕으로 기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개별 언어이므로 보편적인 언어 특징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 수어의 품사에 대해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9품사를 적용하여 서술하기도 하는데(김승국, 1983, pp. 43-48; 이준우 & 남기현, 2014, pp. 191-217), 한국 수어는 품사 전성이 자유롭고 어순에 의해 형용사가 수식 기능으로만 사용된다고 보면 관형사와 같은 품사의 설정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최상배 & 안성우, 2003, p. 60; 원성욱 외, 2021, p.151). 따라서 품사 구분에 대한 언어유형론적 접근을 통해 한국 수어의 품사를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 수어에 대한 문법 기술에서 언어 보편적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오노마지올로지(onomasiology)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⁴⁾ 한 언어의 일면을 파악하는 데에 좀 더 유용할 수가 있다(박진호, 2011, p. 293). 즉, 한국 수어에 나타나는 문법 현상을 보다 정교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언어 보편적 개념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언어에서 시간에 대한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사건의 시간 위치를 발화시를

-
- 1) 수화 언어를 수어라 칭하며, ‘한국수화언어법’(2023)을 통해 국가 공용어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 2) 인공 수어는 문법 수어,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 대안 수어(alternative sign language)라고 지칭되기도 하지만 음성 언어의 문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지적 표현이므로 농인의 진정한 기본 언어(primary language)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Stokoe, 2001, p. 165; 최상배·안성우, 2003, p. 14).
 - 3) 세마지올로지와 오노마지올로지 접근은 각각 해석론/표현론(박진호, 2011, pp. 292-293), 의미론/명의로론(목정수, 2016, p. 57), 어의론/명칭론(이현근, 2019, p. 699)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 4) 메타 언어적으로 사용되는 ‘명사, 동사, 주어, 서술어’ 등의 용어는 특정 언어만의 문법 기술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언어 보편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기준으로 과거나 미래를 구분하는 요소가 어휘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나타내는 표지가 있으면 시제 언어(tense language)로 구분된다(박진호, 2011, p. 291). 수어에서 시간 표현은 바닥과 평행하며 수어자의 몸 뒤쪽부터 어깨를 지나 팔 길이까지를 해당하는 그림 1과 같은 시간선(time line)을 사용하여 표시된다(Sutton-Spence & Woll, 1999, p. 183). 이는 시간은 직접 감지하기 어려우므로 시간적 공간(temporal space)에서 위치를 통해 시간이 표시하는 것이며(Lakoff, 1993, p. 218; Radden & Dirven, 2007, p. 332), 인지적으로 시간을 공간으로 표현하는 은유적 표상에 해당한다(임지룡, 2018, p.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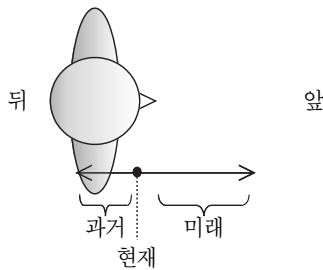


그림 1. 시간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참조점
(김희섭, 1996, p. 40; Pfau et al., 2012, p. 190)

한국 수어에서도 수어자의 몸을 참조점으로 하여 시간선을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사용된다. 즉, 과거는 수어자의 몸 뒤쪽을 향하고, 현재는 수어자의 몸과 가까운 위치에서 산출되며, 미래는 수어자의 몸에서 앞으로 향하는 선형 배치를 보인다(이준우 & 남기현, 2014, pp. 302-303).

- (1) a. [아버지] [어제] [집] [쉬다]
“아버지는 어제 집에서 쉬셨다.”
- b. [내일] [황사비] [오다]^{짧게 반복 수동}
“내일 황사비가 오겠다.”



예를 들어 한국 수어에서 시간선을 이용하여 (1a-a')처럼 뒤쪽을 가리킴으로써 ‘어제’를 나타내고 (1b-b')와 같이 앞쪽을 가리키면 ‘내일’을 의미한다(이준우 & 남기현, 2014, pp. 76, 133; 원성욱 외, 2021, pp. 120-121). 그리고 동사를 표현할 때 그 행위의 시간 위치가 시간선

에 근거하여 나타난다면, 문법적인 시간 표현, 즉 시제(tense)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한국 수어에서 이 시간선을 통해 시제를 나타내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미래 시제를 위해 상체를 앞으로 내밀거나 과거 시제를 위해 상체를 뒤로 짓히는 것과 같은 시제가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원성옥 외, 2021, p. 121), 그와 같은 시제 표현이 나타난다고 보는 서술도 나타난다(이준우 & 남기현, 2014, pp. 302-303).

- (2) a. [오늘] [공식] [회의] [끝]^{얼굴 상하로 끄덕임}
 “오늘 공식 회의 마치겠습니다.”
 b. [숙제] [끝]
 “숙제를 마쳤다.”

또한 (2a)처럼 [끝]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고 분석하기도 한다(윤병천 & 김병하, 2004, p. 267). 하지만 이처럼 어휘적 수단에 의해 표시되는 사건의 시간 위치를 시제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시제가 기본적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문법적으로 표시하는 범주이기 때문이다.⁵⁾ 즉, 시제 언어인 한국어에서는 어휘가 아니라 ‘-았-’과 같이 문법화된 표지에 의해 시제를 나타낸다.

한편 동일하게 [끝]이라는 어휘가 사용되는 상황인 (2b)와 같은 문장을 동작이 끝마쳤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완결상)’이라고 지칭하는데 원어로 퍼펙티브(perfective)에 해당하는 문법상으로 설명된다(이세은, 2015, p. 7, p. 28; 원성옥 외, 2021, pp. 122-123). 하지만 퍼펙티브(perfective)는 사건을 전체적인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는 상으로 끝남보다 전체적인 완전한 조망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적절한 적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건 전체를 온전한 시야에 넣고 바라보는 상 유형은 ‘완망상’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진호, 2011, p. 304).⁶⁾

이처럼 개념적 혼동으로 인해 한국 수어의 시제 및 상과 관련된 문법 기술에서 통일된 기술에 이르지 못하고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며, 동일한 문장을 상이한 범주로 분류하거나 상반된 서술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언어유형론적으로 시

5) 문법 표지가 아니라 시간 부사와 같은 어휘로 사건의 시간 위치를 표시하는 언어를 무시제 언어(tenseless language)라고 칭하며 중국어, 베트남어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언어들이 이에 해당한다(박진호, 2011, p. 291; 허용 김선정, 2013, p. 284).

6) 완전한 조망을 나타내는 완망상(perfective)과 달리 과거 사건의 현재 관련성을 나타내는 완료(perfect)라는 문법 범주와도 자주 개념적 혼동을 일으키므로 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Comrie, 1976, pp. 18-21; Bybee, 1985, p. 159; Radden & Dirven, 2007, p. 178). 즉, [끝]은 사건의 전체적 조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퍼펙티브(perfective)를 ‘완료상(완결상)’으로 명명하는 것은 개념의 부적절한 적용이므로 본고는 ‘완망상’을 사용하지만 논지를 인용하는 경우에 원래 표시를 그대로 따라 ‘완료상(완결상)’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중국어 문법에서는 퍼펙티브(perfective)를 完整相(완정상)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간선을 따라 나타나는 문법 표현을 시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끝]과 같은 어휘에 의한 표현은 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끝]으로 표시되는 국면으로 전체적 조망에 해당하는 퍼펙티브(perfective)를 나타낸다고 보고 완료상이라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종결상(conclusive)로 분류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어유형론에서 논의된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는 오노마지올로지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 수어의 시제와 상에 대해 살펴보고 보다 정연한 기술을 도모하고자 한다.

2. 한국 수어의 시제

한국어는 ‘-었-’ 또는 ‘-겠-/-을 것이-’와 같은 문법 표지에 의해 시제가 표시되지만(박진호, 2011, pp. 294, 297), 한국 수어에서는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화된 표지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서원희, 2020, p. 6).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 수어에서 시간이 어휘로 표현되는 것이 공통된 현상이며, 문법화된 시제 표지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보아 왔다(Pfau et al., 2012, p. 187). 따라서 한국 수어에서 시제라는 문법 범주가 자칫하면 한국어 문법 기술에 경도되어 편향된 서술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수어에서 (1)의 예문들과 같이 시간 부사([어제], [내일] 등)를 문장 앞에 표시하는 시간 표현을 시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석동일, 1990, pp. 94-95; 이준우 & 남기현, 2014, pp. 217-218; Pfau et al., 2012, p. 188),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가 발생한 시간적 위치를 문법 수단(grammatical means)으로 나타내는 것을 시제(tense)로 제한하여 지칭해야 한다. 즉, 어떤 언어가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단지 어휘적 수단으로만 표현한다면 이는 무시제 언어에 해당하며(박진호, 2011, pp. 290-291), 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형태로 시간을 표시하는 문법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 수어도 무시제 언어라고 분류해야 할 것이다.

- (3) a. [GIANNI] [HOUSE] [BUY]^{어깨 뒤로(shoulder backward)}
 “Gianni가 집을 샀다.”
- b. [GIANNI] [HOUSE] [BUY]^{어깨 앞으로(shoulder forward)}
 “Gianni가 집을 살 것이다.”
- c. [TOMORROW] [GIANNI] [HOUSE] [BUY]
 “내일 Gianni가 집을 살 것이다.”

그런데 이탈리아 수어(Lingua dei Segni Italiana)는 시간선을 따라 움직이며 동사를 표현하면 이를 문법화된 시제 표현으로 보는 대표적인 언어이다. 즉, 비수지 기호인 어깨 위치를

통해 시간 정보를 전달하는데, (3a)처럼 어깨를 뒤로 기울이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반대로 (3b)처럼 어깨를 앞으로 기울이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Zucchi, 2009, p. 101). 또한 이탈리아 수어는 (3c)와 같이 시간 부사가 나타나면 비수지 시제 굴절이 문장에 표시되지 않는데, 이는 일반적인 시제 언어와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음성 언어에서 시간 어휘와 시제 표지가 함께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탈리아 수어에서 시간 어휘가 표시되는 경우에 문법 표지가 함께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Pfau, 2012, p. 191).

- (4) a. 어제 갔어요.
b. *어제 가요.

하지만 (4a)의 한국어와 같이 음성 언어의 시제 표지는 어휘인 시간 부사와 한 문장에 출현하는 데에 제약이 없으며, (4b)와 같이 과거 시제는 시간 부사가 있더라도 필수적으로 문법 표지가 동시에 표시되어야 하는 양상이 정규적(canonical)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탈리아 수어의 시제는 음성 언어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간 속성을 어휘와 문법에 모두 표시하는 음성 언어와 달리 수어 문장에 나타나는 어휘 또는 문법 요소 가운데 하나에만 시간 속성을 표시하여 문장 전체의 시간 위치를 나타냄으로써 중복에 의한 잉여성을 피하려는 경제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된다.

- (5) a. [건다]^{동작없이 몸을 앞으로 기울임}
“곧 걸을 것이다.”
a'. [책] [펴다]^{몸을 앞으로 기울임}
“지금 막 읽으려고 하고 있다.”
b. [열다]^{몸을 앞으로 기울임(느리게)}
“개관할 것이다.”
c. [건다]^{멈추고 동시에 몸을 기울임}
“걸기 시작하다.”

한국 수어에도 이와 유사한 용법이 있는데, (5a-a')와 같이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는 체전 경(體全傾)을 통해 '미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았으며(석동일, 1990, pp. 100-101), (5b)와 같이 느리게 기울임이 나타나는 것을 '예정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서원희, 2020, pp. 51-52). 또한 (5a-a')의 의미는 곧 또는 지금 막 일어날 것 같은 사건을 나타내는데, 이는 임박하거나 곧 일어날 것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근접 미래(immediate future)의 양상과 매우 유사한 특성이다(Bybee et al., 1994, p. 244).⁷⁾

- (6) a. **ik** *ḡoa* *tes*
 미래.1/2인칭 1인칭.단수 먹다
 “나는 먹을 것이다.”
- b. **sa** *ḡoa* *tes*
 근접 미래 1인칭.단수 먹다
 “나는 금방 먹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베이닝(Baining)어에서는 (6a)와 같이 접두사 i-로 단순 미래를 나타내지만 (6b)의 첨사 sa를 통해 근접 미래를 표현함으로써 곧 발생할 사건을 나타내는 근접 미래와 그렇지 않은 미래를 구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수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을 통해 근접 미래를 나타내고 여기에 ‘느리게’라는 속도를 통해 단순 미래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고 구분된다. 또한 이는 시간선을 따라 나타나는 표현이므로 문법화된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 (7) a. *[내일] [걷다] 몸을 앞으로 기울임
 “내일 걸을 것이다.”
- b. *[지금] [걷다] 몸을 앞으로 기울임
 “지금 막 걸으려 한다.”

그런데 한국 수어의 근접 미래는 (3c)의 이탈리아 수어와 마찬가지로 (7a)와 같이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 [내일]과 공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7b)처럼 현재를 나타내는 [지금]과 같은 문장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근접 미래가 의미상 현재와 미래에 걸친 시간대를 나타내므로 이와 같은 의미 속성을 지닌 어휘가 문장에 표시되면 경제성 제약(economy constraint)에 따라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공기 관계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Pfau et al., 2012, p. 13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특성은 음성 언어의 시제와 구별되는 수어 시제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8) a. 내일 갈 거예요.
 b. 내일 가요.

7) 수어로 [걷다]를 표현하다가 멈추고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동작의 시작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석동일, 1989, p. 100), 이는 시간선을 따라 나타나는 표현이므로 시제와 연관지을 수도 있지만 멈춤이라는 신호가 같이 나타나므로 동작이 시작하는 국면을 나타내는 기동상(inchoative)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석동일(1989, p. 100)은 (5a)와 같이 ‘동작없이 몸을 앞으로 기울임’과 구별하여 (5c)의 ‘동작을 멈추고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임’을 서로 다른 의미로 표시하였다. 본고는 시간선을 따라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근접 미래 시제로 구분하며, 기동상의 의미를 함께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음성 언어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국어에서 미래에 대한 시간 표현은 (4)의 과거 시제와 달리 (8b)처럼 어휘적으로 나타나고 문법 표지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와 시간상 현재를 기준으로 거울 영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제는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엄격한 문법 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요소라면 미래 시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나타내므로 이와 달리 좀 더 느슨한 규칙이 적용되어 수의적으로 표시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박진호, 2011, p. 297). 이와 같은 양상에 비추어 한국 수어와 이탈리아 수어의 미래 시제는 한국어의 과거 시제와 같은 필수성을 없지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로서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 (9) a. [어제] [걷다]^{몸을 앞으로 기울임}
“어제 걸으려 했다.”
- b. [오늘] [걷다]^{몸을 앞으로 기울임}
“오늘 걸으려 했다.”

또한 한국 수어의 체전경은 (9)와 같이 과거 표현과 함께 쓰여 근접 미래가 아닌 의도(intention)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한국 수어의 체전경은 다의성을 갖고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시간 표현과의 공기 관계에서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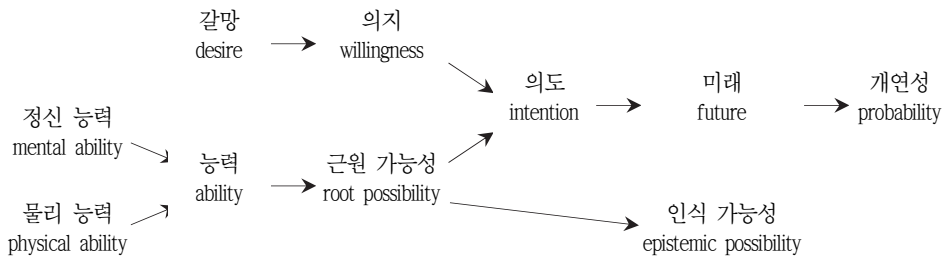


그림 2. 미래 시제의 발달 경로(Bybee et al., 1994, pp. 194, 240)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도 그림 2와 같이 일반적으로 음성 언어에서 미래 시제가 문법화하며 발달하는 경로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의도를 나타내던 요소가 미래 시제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 수어의 미래 시제 표지가 완전히 문법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문법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한국 수어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가 존재한다고 기술할 수는 없지만, 어휘적으로 과거를 표현하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용법이 문법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고 서술하는 것이 보다 정교한 기술이 될 것이다.8)

한편 이탈리아 수어와 달리 한국 수어는 몸을 뒤로 하여 과거 시제를 표시하는 방법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한국 수어의 조음 공간에서 화자의 몸 앞쪽 공간인 중립 공간을 지향하여 표시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시제를 둘로 나누는 언어들에서 [과거-비과거]의 구분이 [非미래-미래]보다 일반적이지만(Whaley, 1997, p. 209), 이와 같은 수어 공간의 특성과 경향성으로 인해 한국 수어는 후자의 이분 체계를 갖는 언어에 속한다고 정리된다.

3. 한국 수어의 상

3.1. 관점상과 국면상

상(相, aspect)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사건의 내적 시간 구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며(Comrie, 1976, p. 3), 시제와 달리 문법적으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이처럼 상은 어휘가 갖는 속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 표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시제보다 더 동사 어근에 가깝게 결합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어도 이와 같은 의미 상관성에 의해 상이 시제보다 동사 어간에 가깝게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Bybee, 1985, p. 4, p. 34).

문법에 의한 상 표현은 러시아어와 같이 상황을 전체와 부분으로만 구분하는 완망상(perfective)과 비완망상(imperfective)의 대립이 체계적으로 발달한 언어에서 먼저 논의되었는데 이를 관점상(viewpoint aspec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Smith, 1997, p. 3). 그리고 서로 관련이 없는 수어들에서 문법화된 [끝/END] 또는 [끝나다/FINISH]를 통해 사건의 종결을 표시하면서 이를 완망상(perfective)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하지만(Pfau et al., 2012, pp. 191-192),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상 유형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10) a. 의자에 앉아 있다.
b. 수박을 먹고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도 결과상을 나타내는 (10a)의 ‘-어 있’를 완료상이라고 지칭하고 (10b)의 ‘-고 있’이 진행상 표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고영근 & 구분관, 2018, pp. 431-435), 한국 수어에 대한 논의에서도 앞의 (2)와 같은 문장을 완료상(또는 완결상)이라고 부르며 이와 같은 구분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이세은, 2015, p. 7, p. 28; 원성

8) 이준우 & 남기현(2014, p. 218)은 (1b)에 예시된 것처럼 동사 [오다]가 짧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수동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특이한 미래 시제 표현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옥 외, 2021, pp. 122-123). 즉, 동작 종결 이후의 시간 국면에 해당하는 결과를 사건 전체를 바라보는 것으로 지칭하는 용어 및 개념의 오류가 한국 수어의 분석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건의 끝점을 나타낸다고 보면서 동시에 사건의 전체를 바라보는 상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상 유형에 대한 정의와는 다르게 끝부분의 시간 국면을 대응시키는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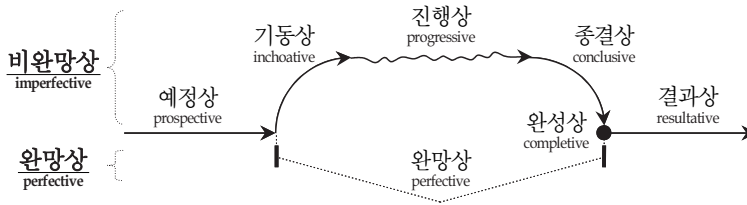


그림 3. 사건의 시간 국면과 상의 유형
(Dik, 1997, p. 225; 정해권, 2019, p. 262)

그런데 사건의 시간 흐름을 발생-지속-종결과 같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바라보는 국면상 (phasal aspect)의 관점에서 그림 3과 같이 상의 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데, 사건의 시간 국면을 바라보는 상 유형에서 진행상(progressive)은 동작이 끝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간대를 나타내고, 결과상(resultative)은 끝점 이후에 사건 종결로 이루어진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를 표시한다. 한국어에서 ‘-고 있-’은 진행상에 해당하지만 ‘-어 있-’은 사건 종결 이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상에 해당한다(박진호, 2011, p. 301). 즉, 국면상은 관점상의 관점에서 사건 국면의 일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비완망상(imperfective)의 하위 유형에 해당하며, 이와 대립을 이루는 완망상(perfective)는 사건 전체를 하나의 덩이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끝과 같은 일부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하위 유형도 설정하지 않는다(Comrie, 1976, p. 25).

- (11) a. 한국팀이 독일 이기-∅-다.
- b. 한국팀이 독일 이기-더-라.
- a'. 독일 이기-∅-ㄴ 한국팀.
- b'. 독일 이기-더-ㄴ 한국팀.

현대 한국어에서 (11a)처럼 동사 어간에 시제 선어말어미와 같은 요소가 없이 바로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하는 형태가 사건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신문 기사,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목 등으로 종종 나타나는 형태인데 종종 ‘절대문(絶對文)’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임흥빈, 1983, p. 132). 그런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 같은 영형태 ‘-∅-’의 사용이 ‘-더-’와 같

은 시제 선어말어미와 대립을 이루며 완망상과 비완망상의 상적 대립을 갖는 체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11a'-b')의 현대 한국어 관형사형의 과거에 그와 같은 상적 대립의 흔적이 남아 있다(최동주, 2015, p. 127). 따라서 완망상을 사건 종결과 연결지어 완료상이나 완결상이라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건의 끝남(完了)과 전체적 조망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상적 개념이다(Comrie, 1976, pp. 20-21).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 수어의 상을 분석하는 데에 완망상과 비완망상의 대립에 의한 관점상은 유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개념적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 수어에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완망상 표지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와 대립을 이루는 상 유형인 비완망상의 설정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사건 종결을 완망상(소위 완료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념의 오용이며, 이는 오히려 국면상의 관점에서 사건의 종결 국면을 바라보는 유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수어의 상에서 반복상(iterative)이나 습관상(habitual)을 별도의 상 유형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나(이준우 & 남기현, 2014, pp. 224-225; 서원희, 2020, pp. 44-45), 상의 유형을 대립적 체계로 설정한 Comrie(1976, p. 25)의 분류에서 반복상은 별도의 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건의 시간 구성을 나타낸다는 관점에서 단일 사건의 시간을 넘어서는 습관상도 상 유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기도 한다(Boneh & Doron, 2010, p. 362).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상 유형은 별도의 상 유형으로 다루지 않으며 사건의 시간 구성에 의해 나타나는 예정상, 진행상, 종결상, 완성상, 결과상에 대해서만 다룬다.

3.2. 국면상의 하위 유형


국면상에서 사건이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는 시간 범위를 바라보는 상 유형은 예정상(prospective)과 기동상(inchoative)으로 구분되며, 진행되던 동작이 끝점에 이른 국면은 종결상(conclusive)과 이후나 이전의 시간을 신경쓰지 않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완성된 국면을 나타내는 완성상(completive)을 나누기도 한다(Dahl, 1985, p. 96; Bybee et al., 1994, p. 54).

- | | | |
|---------|----------------------|-------|
| (12) a. | 꽃이 피려고 한다. | (예정상) |
| b. | 꽃이 피기 시작 <u>했다</u> . | (기동상) |
| c. | 꽃이 떨어 <u>진다</u> . | (진행상) |
| c'. | 꽃이 떨어 <u>졌다</u> . | (종결상) |
| d. | 꽃이 떨어 <u>져 버렸다</u> . | (완성상) |
| e. | 꽃이 떨어 <u>져 있다</u> . | (결과상) |

한국어에서 (12a)의 ‘-려고 하-’나 (12b)의 ‘-기 시작하-’는 각각 예정상과 기동상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2c)의 단어 ‘떨어지-’는 자체 의미가 종결 국면을 나타내지만 (12c')과 같이 ‘-었-’이 결합해야만 종결점에 이른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문맥에서 ‘-었-’은 과거 시제보다 종결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완성상도 사건이 근원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의미하며 (12d)의 ‘-어 버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완성상은 끝점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끝남이나 결과보다 완전한 성공을 강조하는 유형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사건의 종결 국면을 바라보는 종결상이나 (12e)의 ‘-어 있-’처럼 종결 이후에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상과 구별된다.

- (13) a. [영화] [축하] [열리다]_(느리게)
 “영화제가 열린다.”
 b. [돈] [주다]^{‘푸’입모양}_(느리게)
 “지급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을 예정상으로 분석하는 입장도 있었으나(서원희, 2020, p. 41), 시간선을 따라 나타나는 표현이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문법화된 미래 시제로 분석하였다. 반면에 (13a-b)와 같이 동사를 느리게 표현하거나 ‘푸’ 입모양을 함께 하며 나타나는 경우는 시간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제가 아니라 상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려고 하-’의 의미로 예정상을 나타낸다(서원희, 2020, pp. 52-52). 즉, 한국 수어에서 미래 시제와 예정상은 일정 부분 겹치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시간선을 따라 문법화된 요소는 미래 시제로 분석되고 그 이외에 속도나 비수지 기호로 표시되는 요소는 예정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수어는 시간의 시간 국면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시작 이전의 단계인 예정상을 구분하여 표시한다.9)

- (14) a. [갈등] [중]
 “반발하고 있다.”
 a'. [만들다] [중]^{‘푸’입모양}
 “만들고 있다.”
 a''. [중] 

9) 다만 한국 수어는 (5)와 같이 근접 미래 시제가 기동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님보란(Nimboran)어, 파이미(Guaymí)어, 철팡(Chepang)어 등에서도 근접 미래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가 기동상의 의미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Bybee et al., 1994, p. 254, p. 267, p. 270).

- b. [추진]^불 부풀림 [있다]
“추진하고 있다.”

한국 수어에서 진행상은 (14a-a')와 같이 [중]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중]이 ‘푸’ 입모양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서원희, 2020, p.42). 또한 (14b)와 같이 불 부풀림과 [있다]로 표시하기도 한다(이준우 & 남기현, 2014, pp. 221-222; 송미연, 2016, p. 65).

- (15) a. [찾다] [끝나다]
“찾았다.”

- b. [숙제] [끝]
“숙제를 마쳤다.”



- b'. [끝]
- c. [공연] [끝]^{빠르게} ^{‘파’ 입모양}
“공연이 끝났다.”

한국 수어에서도 (15a, b)와 같이 [끝나다]나 [끝]을 통해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내는데(석동일, 1989, p. 94; 최상배 & 안성우, 2003, p. 131), 이는 앞서 그림 3에서 보여 주는 종결 국면에 해당하며 완전한 성공이라는 의미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여러 수어에서 나타나는 [END]나 [FINISH]에 의한 상은 완성상(completive)이 아니라 종결상(conclusive)에 해당한다.¹⁰⁾ 또한 (15c)와 같이 ‘파’ 입모양을 하면서 [끝]을 빠르게 표시함으로써 종결상을 표현하기도 한다(송미연, 2016, p. 64; 서원희, 2020, pp. 47-48).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3)의 [완료하다/FINISH] 또는 [끝/END]를 통해 표시되는 상 유형을 완료상(perfective)으로 소개하기도 하지만(원성욱 외, 2021, p. 123), 이는 사건을 전체적인 하나(single as a whole)로 표시하는 관점에 해당하기보다 사건의 종결 부분을 들여다보며 끝냄을 나타내는 종결상에 해당하므로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Dahl, 1985, p. 95).

10) 사건의 종결을 표시하는 상을 완성상(completive)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지만(Pfau et al., 2012, pp. 191-192), 완전한 성공을 나타내기보다 단순히 사건 종결 국면을 나타내므로 종결상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 수어에서 [끝]을 과거 시제로 분석하기도 하는데(엄미숙, 1996, pp. 55-56; 송미연, 2016, p. 60),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끝]은 시간선을 따라 표현되는 문법화된 표지로 보기 어렵고 어휘에 가깝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아니며 종결상을 나타내는 상 표지로 분석된다.

- (16) a. [친구] [만나다] [합당]^{‘과’입모양}
 “친구 만났다. (내 친구가) 맞다.”



a'. [합당]

그런데 한국 수어에서 완성상으로 볼 수 있는 상 표현이 발견되는데, (16)과 같이 동사 이후에 ‘과’ 입모양과 함께 [합당]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즉, 이와 같은 표현은 단순히 사건 종결의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였던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였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이준우 & 남기현, 2014, p. 231).

- (17) a. *He is sitting in a chair.*
 b. [앉다]^{‘어’입모양}
 “앉아 있다.”
 b'. [앉다] [있다]
 “앉아 있다.”
 c. [알다]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 (17a)와 같이 종결성(telicity)을 갖는 영어 자동사는 진행상 표지인 be ~ing를 통해 사건 종결 이후의 결과, 즉 결과상을 나타낼 수 있다(Radden & Dirven, 2007, p. 181).¹¹⁾ 한국 수어도 (17b)처럼 ‘어’ 입모양으로 결과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 주로 [앉다], [서다], [눕다]와 같은 자세를 나타내는 자동사에 해당한다(이준우 & 남기현, 2014, p. 220).¹²⁾ 또한 어휘적으로 [있다]와 함께 쓰여 결과상을 나타내는데, 한국어의 ‘-어 있-’도 ‘앉다, 서다, 눕다’ 등의 종결성 자동사와 결합하여 주어 결과상을 나타낸다.¹³⁾

11) 종결성(한계성)은 동사가 갖는 상적 속성의 하나로 동작이 전개되고 지속을 거쳐 종결점(terminal point)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Comrie, 1976, p. 44). 종결(telic) 동사와 비종결(atelic) 동사는 중단된 상황을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노래하다가 멈춘 상황은 노래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의자를 만들다가 멈춘 상황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
 12) 또한 한국 수어는 한국어와 달리 [싸우다]와 같은 대칭 동사도 ‘어’ 입모양으로 상태 지속을 나타낼 수 있다(이준우 & 남기현, 2014, p. 220).
 13) 결과상 가운데 목적이 결과상이 여러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주어 결과상이 발달하지 않은 언어도 많다(Nedjalkov & Jaxontov, 1988, pp. 22). 한국어에서 ‘열다, 닫다, 만들다’와 같은 종결성 타동사는 피동 표지 ‘-이/히/리/기-’ 또는 ‘-어지-’ 등이 결합하여 주어 논항이 생략되는 논항 조정이 있는 후에야

한편 ‘알다’는 영어에서 *I am knowing it.과 같이 진행형으로 나타낼 수 없는 상태 동사(state verb)이므로 한국어에서 ‘알고 있다’의 ‘-고 있’을 상태 동사와도 결합이 가능한 연속상(continuous)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박진호, 2011, pp. 302-303), ‘신을 신고 있다’의 ‘-고 있’이 결과상을 나타내는 것과 유사하게 분석하기도 한다(정해권, 2021, p. 92). 그런데 (17b)의 [있다]와 마찬가지로 (17c)의 [알다]도 [있다]로 결과 상태 지속을 나타내므로 결과상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한국 수어에 대한 언어유형론적 연구가 한국어학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18) a. [닫다]^{멈춤}+^[중]

“닫혀 있다.”

b. 도훈 차반 먹고 이쇼디

《석보상절 24:28》

한편 한국 수어에서 [중]은 주로 진행상을 나타내는데, (18a)와 같이 동작을 멈추며 [중]을 표시함으로써 타동사의 목적어 결과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서원희, 2020, p. 49). 이는 중세 한국어에서 (18b)와 같이 “좋은 차반을 먹고서 있되”와 같이 ‘-고 있’이 결과상으로 해석되는 용법과 유사하다. 이때의 ‘-고’는 사건이 종결된 다음으로 다음 일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종결된 결과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18a)의 한국 수어에서 [멈춤]으로 문이 닫히는 것이 끝나고 그 상태가 지속 [중]임을 표시함으로써 결과 상태의 지속을 표시하는 것이다.¹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수어에서는 국면상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는 예정상, 진행상, 종결상, 완성상, 결과상 등이 표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특성은 한국 수어가 사건의 시간 구성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각 국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문법을 발달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결론

인간의 언어는 시간과 관련하여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표현하는 문법인 시제(tense)와 사건의 내적 시간 구성을 들여다보는 방식을 표현하는 상(aspect)을 문장에 표시한다. 한국 수어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상을 표시하는데, 기존의 분석에서는 시제와 상에 대한 개념에 따른 기술보다 다소 직관적인 용어 사용 또는 문법 서술이 제시됨으로써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어 있’이 결합하여 목적어 결과상을 표시할 수 있다.

14) 한국어에서도 ‘(옷을) 입고 있다, (버스를) 타고 있다와 같은 포함 동사(container verb)는 ‘-고 있’을 통해 진행상과 함께 결과상도 나타낼 수 있다(정해권, 2021, p. 99).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언어유형론에서 사용되는 오노마지올로지의 관점을 통해 개념에서 기호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한국 수어의 시제와 상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기존 논의를 새롭게 분석하여 한국 수어의 시제와 상에 대해 재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시제는 사건의 시간 위치를 문법적으로 나타내는 범주인데, 기존 연구에서는 어휘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를 막연하게 시제로 지칭하거나 시제와 관련된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문법화된 표현으로 한정하여 서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3)의 이탈리아 수어와 같이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시간선에 따라 나타나는 굴절 요소를 문법화된 시제 표현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한국 수어에서도 동사와 함께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을 근접 미래로 보았으며 느리게 표시되는 체전경은 미래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한국 수어는 이탈리아 수어와 달리 몸을 뒤로 하는 과거 시제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비과거와 과거가 대립하는 시제 체계를 갖는 언어로 분석된다.

한편 상은 사건의 시간 구성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크게 완망상(perfective)과 비완망상(imperfective)로 나누는 관점상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시간의 국면에 따라 구분하는 국면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완망상은 소위 완료상 또는 완결상으로 지칭되지만 이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이와 대립하는 비완망상 표현은 찾을 수 없으므로 한국 수어의 상 구분에 유용하지 않음을 보았다. 즉, 완료상이나 완결상과 같은 용어의 사용은 개념적 혼동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한국 수어의 상 표현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한국어 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지적하였다(박진호, 2011, p.304).

표 1. 한국 수어의 상 표현

관점상 유형	표현 양상	예문 주석	번역
예정상	동사 _(느리게) / '푸' 입모양 _(느리게)	[열리다] _(느리게)	"열린다."
진행상	동사 [중] '푸' 입모양	[만들다] [중] '푸' 입모양	"만들고 있다."
종결상	동사 [끝]	[숙제] [끝]	"숙제 마쳤다."
완성상	동사 [합당] '파' 입모양	[만나다] [합당] '파' 입모양	"만났다, 맞다."
결과상	동사 [있다]	[앉다] [있다]	"앉아 있다."

반면에 국면상의 관점에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예정상, 진행상, 종결상, 완성상, 결과상 등이 구분되는데, 한국 수어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표 1과 같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수어에서 동사를 느리게 표시하거나 ‘푸’ 입모양과 함께 느리게 굴절하는 경우는 예정상을 나타내며, [중]이나 볼 부풀림 또는 ‘푸’ 입모양과 함께 [있다]를 표시하면 진행상을 나타내고, [끝]으로 종결상을 표시한다. [중]과 [끝]이 어휘에서 문법화하여 진행상과 종결상을 표시하는 문법화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파’ 입모양과 함께 나타나는 [합당]을 통해 완성상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수어에서 자동사 주어 결과상은 ‘어’ 입모양이나 [있다]를 통해 표시되는데, [알다]와 같은 상태 동사도 결과상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타동사에 멈춤과 함께 [중]을 표시하면 타동사 목적어 결과상을 표시하기도 한다.

한국 수어의 시제와 상도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상이 더 기본적인 문법 범주로 문법화하고 있으며, 시제는 아직 문법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사건의 시간 국면을 보는 방식이 더 도상적이며 인식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수어의 분석에서 보다 추상적인 관점보다 구체적인 국면에 대응하는 국면상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발견되며, 시제는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에 해당하는 요소는 발견되지 않지만, 수어 화자의 전면을 조음 공간으로 하는 특성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시간선에 따라 묘사하는 미래 시제가 먼저 발달하였다고 정리된다. 이처럼 오노마지올로지 관점에서 한국 수어를 분석하면 기존 연구에서 혼란스럽게 제시되던 내용을 보다 정연하게 정리하는 데에 유용하다. 다만 상은 동작류(어휘상)에 따라 상이한 분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분석의 효용성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될 점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희섭. (1996). 한국 표준 수화의 자연언어성 고찰: 음운론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3, 25-42.
- 목정수. (2016). 유형론과 정신역학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서법과 양태. *한국어학*, 70, 55-108.
- 박진호. (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289-322.
- 법제처. (2023).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타법개정].
- 서원희. (2020).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상 대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동일. (1990). *한국 수화의 언어학적 분석*.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석수영. (2019). 수어. 임지룡 외(편). *인지언어학 탐구의 현황과 과제* (pp. 403-420). 서울: 한국문화사.
- 송미연. (2016). TV 뉴스 한국수화언어 통역의 통사 의미론적 분석.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성욱, 김유미, 남기현, 김성완. (2021). *한국수어 문법*. 서울: 국립국어원.

- 윤병천, 김병하. (2004).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5(1), 253-277.
- 엄미숙. (1997). *한국수화의 통사론적 특징 분석*.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세은. (2015). *한국 수화의 상과 논항구조: 이동 동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우, 남기현. (2012). *한국 수어학 개론*. 파주: 나남.
- 이현근. (2019). 명칭론(Onomasiology)과 어의론(Semasiology). 임지룡 외(편). *인지언어학 탐구의 현황과 과제* (pp. 699-721). 서울: 한국문화사.
- 임지룡. (2018). *한국어 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 정해권. (2019). 한국어 진행상과 결과상의 습득 연구 '-고 있-'과 '-어 있-'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8, 257-280.
- 정해권. (2021). 한국어 문법상과 어휘상의 인지언어학적 접근. *담화와 인지*, 28(3), 81-108. doi: 10.15718/discog.2021.28.3.81
- 최상배, 안성우. (2003). *한국수어의 이론*. 서울: 서현사.
- 허용, 김선정. (2013). *대조언어학*. 안양: 소통.
- Boneh, N., & Doron, E. (2010). Modal and temporal aspects of habituality. In M. R. Hovav, E. Doron, & I. Sichel (Eds.). *Syntax, lexical semantics and event Structure* (pp. 338-36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OI: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9544325.003.0016>
- Bybee, J.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이성하·구현정 역. (2000). 형태론: 의미-형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Bybee, J., Perkins, R., &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박선자·김문기 역. (2010). *문법의 진화: 시제, 상, 양태*. 서울: 소통.
- Comrie, B. (1976). *Aspe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hl, Ö. (1985). *Tense and aspect systems*. New York: Blackwell.
- Dik, S. C. (1997). *The theory of functional grammar: The structure of the clause*. Berlin: Walter de Gruyter.
- Lakoff, G. (1993).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A.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2nd) (pp. 202-25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djalkov, V., & Jaxontov, S. (1988). The Typology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In V. Nedjalkov (Ed.). *Typology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pp. 3-62).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 Pfau, R., Steinbach, M., & Woll, B. (2012).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 Berlin: Mouton De Gruyter.
- Radden, G., & Dirven, R. (2007). *Cognitive English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mith, C. S. (1997). *The parameter of aspect* (2nd). Boston: Kluwer.
- Stokoe, W. C. (1972). *Semiotics and Human Sign Languages*. Hague: Walter de Gruyter.
- Sutton-Spence, R., & Woll, B. (1999).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aley, L. J. (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김기혁 역. (2010). *언어 유형론: 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서울: 소통.
- Zucchi, S. (2009). Along the Time Line: Tense and Time Adverbs in Italian Sign Language. *Natural Language Semantics*, 17, 99-139.

정해권

61452 광주시 동구 조선대길 164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전화: (062)230-6182
이메일: haegwon@chosun.ac.kr

Received on November 7, 202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26, 2023
Accepted on December 31, 2023